JA그룹 독자의 통일 GAP 책정

일본 JA全中(농협중앙회)는 2015년 말까지 JA그룹 차원에서 "식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위한 GAP (기초위생관리)"(가칭)을 만들 계획이다.
농축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확인하는 공통 항목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통해 JA의 브랜드력을 강화한다. 농축산물 안전성에 관하여 JA그룹이 통일의 체크 항목을 설정 한 것은 처음이다. 정착한 생산이력기장운동을 기반으로 JA그룹 전체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`16년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.

JA독자 GAP 책정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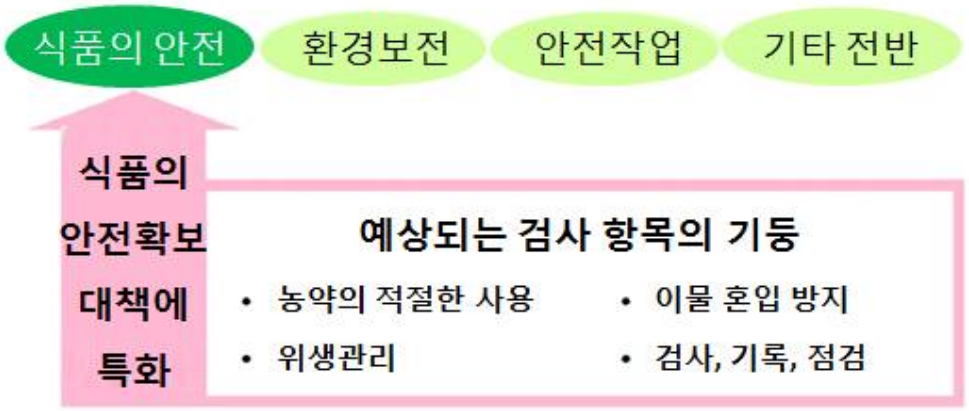
- 농장의 농업 생산 공정 관리 수법으로 현재 "JGAP"이나 "글로벌GAP" 등 복수의 GAP이 일본 국내에 있으며, 이러한 GAP을 산지가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, JA그룹 차원의 통일 기준은 없었다.
- 그래서 JA는 농림수산성이 정하는 GAP지침 등을 근거로 식품 안전 분야를 중시하고 독자적으로 책정한다.
- GAP 책정을 위해 전중, 전농, JA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7 월에 설치하여, `15년 말까지에 공통 항목(안)을 굳히고 `16년도부터의 운용을 목표로 한다.

JA브랜드 강화를 목표

- JA全中가 책정하는 GAP은 인증 제도가 아니라 JA그룹 전체에서 활용하는 공통 확인 항목으로 제시한다.

- 유통 업체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JA 마크가 있는 농축산물은 안전하다는 이미지의 브랜드력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.
- 현재 JA그룹은 안전성 확보의 실천 방법으로 “생산 이력 기록의 철저”에 노력하고 있다.
- 이를 기반으로 출하 전에 농장과 작업장에서 검사 대상 항목을 마련할 예정이며, 항목은 ‘반복 사용하는 수확 용기는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있는지’ ‘재배 이력 시트에 기록하여 출하하기 전에 JA에 제출하고 있는지 ’등을 상정하고 있다.
- 이미 JGAP 등을 받은 산지는 JA그룹의 통일 항목을 충족하고 있으며, 그 이외 산지나 모임은 향후 수립하는 통일의 공통 항목을 충족하도록 유도한다.

JA그룹이 책정하는 GAP의 이미지



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인

생물학적요인	병원균, 바이러스, 기생충 등
과학적	잔류 농약, 알레르기 물자, 식물성 자연 독 등
생리적	이물 혼입 (출하 골판지에 플라스틱 조각 등의 혼입 등)

(JA전중의 자료를 토대로 작송)

시사점

- 국산 (일본산) 농산물의 브랜드력 및 안심 안전 대책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.
- 앞으로 더욱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예상되며, 한국산 농산물도 더욱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.
- 또한 수출 농식품에 한국의 GAP 등 농산물 인증 마크 부착을 통해 한국산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.

.